

부산 불교계 첫 노인전문복지관 수탁

혜원, 2월부터 영도구노인복지관 운영

부산시에서 노인인가가 가장 많은 영도구에 불교계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전문복지관이 생겼다.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혜이) 2월부터 위탁 운영하게 된 영도구노인복지관(관장 선공)을 수탁운영한다. 부산 불교계가 노인전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도구노인복지관의 위탁 결정은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가능케 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1년 지어진 영도구노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식당, 물리치료실, 오락실,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실, 강당, 영도구노인지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목적 복지관이다. 사회복지법인 혜원이 수탁받으면서 우선 시설 확충부터 시작했다. 시설을 보완해 나행복지관으로 규모를 넓히는 한편 발 빠르게 노인들의 욕구 파악에 돌입했다. 이는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전 욕구 파악으

로 '언제든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노인복지프로그램'으로 학위를 받은 선공 스님의 남다른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복지관은 '공간'만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있다고 진단, 단순히 이용만 하

어르신들 참여 기회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성 방침

노인복지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인성 질환을 가진 가족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만들어주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서예교실을 열거나 어르신들이 직접 지도하는 예절교실 등도 구상 중이다. 또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사회복지법인 혜원이 영도구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영도구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인성 질환을 가진 가족들을 위한 전문 교육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현대적 시설을 갖춘 물리치료실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지역민과의 연계를 위해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갈 방침이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복지관 소식지 발간 등 준비에 한창인 영도구노인

복지관은 2월 22일 오후 2시 개원식과 관장 취임식을 함께 갖는다.

선공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로병사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긍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몸이 늙었을 뿐 마음은 그대로인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051)417-6344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종간

김해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지금은 김해를 대표하는 상징어가 돼 버린 '가야', '가야사'나 '가야불교'니 하는 말조차 드물었던 1985년 5월, 뜬금없이 가야문화운동을 제창한 사람이 있었다. '뜸금없는' 일을 넘어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뜻 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물려있던 가야사를 발굴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김해향토문화연구소 김종간(55) 소장이다.

11대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던 시절, 가야사에 대한 글을 청탁받으면서 김수로왕의 후손이면서도 가야사를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온 김 소장의 가야사 연구에는 역사학자의 연구를 뛰어넘는 열정이 가득하다.

김해농고가 최종 학력인 그였지만 한문으로 된 역사서를 독학, 삼국유사, 고려사 등 관련 서적들을 독파하기 시

연구와 노력은 서포터라이트를 받았다. 불교계에선 스님들과 불자들의 뜻을 모아 가야불교문화원이 완공돼 가야불교를 알리는 공간이 마련됐다.

그러나 김 소장은 아직도 가야사는 미완의 역사라고 말한다. "허황후가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존경을 받았다는 기록을 보면서 가야사의 진정한 복원은 그 정신의 복원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기록 중심의 역사를 넘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을 관통하며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김 소장의 바람은 역사 바로 찾기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가닿는다.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남보고, 일본이 독도를 넘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찾지 않았기 때

김해가야문화연구회 조직 정체성 찾기 노력

가락국기·향토사 자료집 발간 보급에도 앞장

작했고 김해가야문화연구회를 만들어 김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1987년 김해향토문화연구소를 개소했고 1989년에는 가야사 국제학술행사를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처음엔 미웠다는 소리도 들었다"는 김 소장은 "가야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김해의 정체성은 가야사에서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48년 허황후에 의해 전래된 가야불교는 김해 지역 모든 사람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 스님들을 중심으로 가야불교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설 혹은 신화적 이야기로만 치부되던 가야사에 매달려온 김 소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해는 가야사가 시민들의 가슴 가슴에 자그마한 살아 꿈틀거리는 문화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가야불교도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시점을 고구려 소수민왕 전래설보다 370여년이나 앞당기며 새로운 황금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회 가야세계문화축전의 주제공연으로 뮤지컬 '가락국기'가 무대에 오르면서 김 소장의 20여년

문이라는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 가락국기 우리말 번역과 향토사 자료집을 발간하고 4만 3000부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보급한 것도 그 때문이다.

"김해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김 소장은 가야대 겸임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가야세계문화축전 감사 등으로 활동하며 '김해전문가'로 통한다.

"아름다움"으로 대변되는 문화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김 소장의 행보는 가야사를 역사교과서에 포함시키기 위한 서명운동, 가야사 관련 유물 반환 운동 등으로 더욱 더 바빠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휠체어 타고 공양 대접 "신나요"

통영 미래사 '선열당' 완공, 문턱없어 장애인 이용 수월



통영 미래사(주지 여진연)는 여는 사찰에 선 보기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사찰 입구에 비치된 휠체어, 장애인용 화장실,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휠체어로가 그것이다. 그런 미래사에 장애인들의 출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계단이 없이 휠체어로 드나들 수 있는 식당이 하나 더 생겨났다.

2월 4일 미래사는 장애인들과 일반 불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인 '선열당' 완공을 기념하며 통영시내의 장애인들을 초대해 공양을 대접했다(사진).

이날 공양에 초대된 장애인들은 모두 100여명. 통영시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와 자생원 원생들과 장애인협회 후원회

관계자들이 미래사를 찾았다.

70여 명의 선열당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음식상을 받았다. 미래사 신도회에서 맛깔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장애인들의 구미를 당겼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언제든 식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전 미래사의 공양장은 마루를 올라, 레벌 높은 문턱을 지나야 했기에 장애인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양을 마친 장애인들은 한결 같이 주지 여진 스님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5년 전부터 미래사와 인연을 이어온 통영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직접 마련한 선물까지 여진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미래사에서 열렸던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에서 휠체어 댄스를 선보였던 박화석(38)씨는 "음악회를 통해 미래사에 온 이후로 몇 번 다녀왔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공룡엑스포와 템플스테이가 만나면?

고성 옥천사·보현사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고성 옥천사(주지 성운)와 보현사(주지 월정)는 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기간(4월 14일~6월 4일)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고성군의 요청으로 운영되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은 공룡세계엑스포 관람객과 불교문화 체험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1기(4월 13~14일)부터 14기(6월 3~4일)까지 1박2일 일정이다. 체험일정은 저녁 예불·법문·절·염불 등의 자율적인 수행과 새벽예불, 참선 혹은 해돋이 등반, 엑스포 행사장 관람 등으로 짜여 있다.

옥천사에는 '임자명반자'를 비롯한 보물과 도지정문화재 및 소장품 119점과 잘피나무 등 많은 볼거리가 있으며 숲으로 터널을 이룬 절 뒤편의 산책길은 삼림욕 장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 보현사는 문수암 불상과 함께 한려수도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3월말까지. 군 문화관광과(055-670-2221)나 옥천사(055-

672-0100), 보현사(055-672-5347)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 1회(1박 2일)에 1만 5천원이다.

천미희 기자

보광선원 선지식 초청법회

부산 보광선원(주지 황백)은 2월 9일 새해맞이 선지식 초청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보광선원 신도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대중사 조실 천운 스님이 법문했다.

천운 스님은 법어에서 "우리는 매일 삼업을 지으며 살고 있다. 삼업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부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며 "그렇게 정진할 때 삼업이 청정해지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법문했다.

보광선원이 마련한 선지식 초청법회는 3월 5일까지 영주암 조실 정관 스님, 선학원 이사장 도형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법사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051)973-7158

이은아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200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edu.cn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 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6년 2월 17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한국총장 손혜인